

평안하신지요?

어느덧 올 한해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군요. 한국도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덥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더위가 절정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온이 48도를 기록했고 아마 조만간 50도까지 갈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더위에 지치지 않고 사역 잘 감당 할 수 있기를 위해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간증**

지난 종려 주일에는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무슬림에서 개종하여 부모의 반대와 위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침례를 받은 R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매는 이번에 침례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사하기 전에 꼭 침례를 받고 그 이사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은 확장 됩니다.



기도해 주셨던 **따만나 가정**의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막내 제산과 둘째 아르만, 넷째 리한은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이제 직장도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 했던 따니야는 이제 걷고 학교를 가기는 하지만 아직도 약하고 수술을 더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부터 두 군데에서 새롭게 주일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지야바드 센터와 비크람 필드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교회라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조만간 이곳들도 어른들도 차고 넘칠 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예배가 사람들로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들어오면서 저는 매년 했던 시골에 우리 사역지를 중심으로 부흥 집회를 올해도 다녀 왔습니다. 8일간 세 곳의 부흥 집회와 두 곳의 결혼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은 안식년으로 인하여 가지 못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지역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

혜를 누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쉬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드릴 건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간절히 부탁** 한

것은 땅은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구할 테니 가능하다면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짓는데 약 300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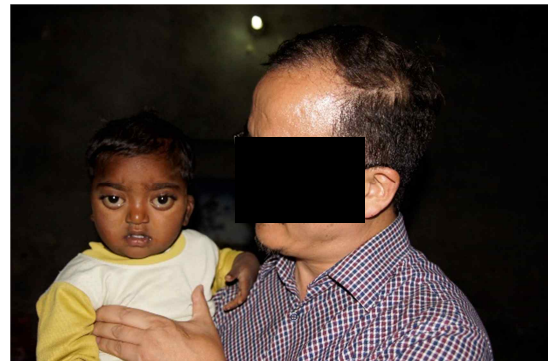
는 제가 벌써 3번째 와서 집회를 하는 곳인데 얼마나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곳인지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곳입니다. 또 한곳은 현재 교인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마을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주위의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집회가 이번이 처음이지만 3년전 다른 곳에 집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저의 그 집회에 참석하여서 꼭 자기 교회에 와서도 집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번에 집회를 하게 된 곳입니다. 집회는 정말 말



그대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병이 든 아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신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루에 3시간씩 설교하는 모임이 세 번씩이나 있어도 이를 동안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제가 더욱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교회도 예배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첫 번째 집회이고 그 목사님을 제가 두 번째에 만난 적이 없기에 좀 더 두

고 보자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편잡의 교회는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씬씬 전도사는 마을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었던 지난 일년 동안 가까운 다섯 마을들에 복음을 전해서 작은 모임이지만 5군데서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모임들이 더 열심으로 공격적으로 전도하여 좋은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 집안의 아이 한 명이 아주 중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박쉬(Albaksh)라는 이제 만



세 살 되는 아이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눈알이 밖으로 튀어 나오는 병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 본 결과 아이의 두개골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눈알이 밖으로 튀어 나오는 병 이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두개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비가 정말 많이 든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보고 기도만 해주고 돌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데쉬 전도사 필드에서 아이들을 목욕시켜주는 워싱 데이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50여명의 아이들을 목욕을 시켜주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국의 파송 교회인 범일교회의 선교 위원장이신 김종호 장로님께서 아이들 옷을 두 박스 보내 주셔서 아이들을 목욕 시킨 후에 새 옷(깨끗한 중고)을 입혀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봉사에는 마침 방학을 하여 인도에 와 있는 우리 딸 은지가 함께하여서 봉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봉사에는 마침 방학을 하여 인도에 와 있는 우리 딸 은지가 함께하여서 봉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태권도 모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6명의 아이들이 청색 벨트를 따서 자랑스럽게 매고 다녔습니다. 태권도 모임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 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는 비크람 형제에게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배우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인도 총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강성

힌두정당인 BJP가 압도적인 다수로 집권을 하였습니다. 많은 무슬림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총리가 된 모디(Modi)는 2002년 구자라트주에서 있었던 힌두들이 무슬림들을 무참하게 학살 했던 사건의 방조자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더욱 강력한 힌두 국가의 완성을 위하여 소수인 모슬렘들과 기독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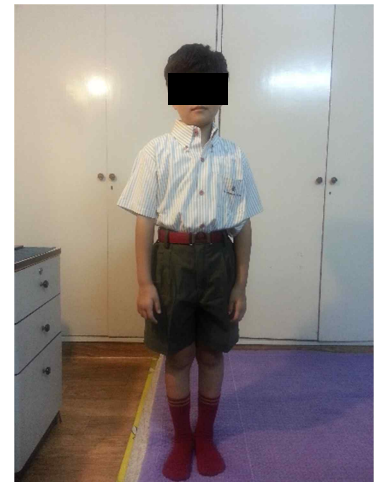
강력하게 핍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지에서 사역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재제와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ㄴㄷ은 방학을 하여서 한국에 들어와서 대전 연구단지에서 3개월 인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일 하면서 사회 생활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ㅇㅈ도 방학을 해서 인도에 들어와서 아빠 사역을 돕는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서 인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호텔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배우고 있고 밤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조금씩 사회에 대하여 배우고, 별어서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ㄱㄹ은 안식년 나가기 전

의 학교에서 일년 동안의 학비를 내지 않고 갔다고 해서 다시 그 학교에 받아 주지 않아서 15년전 ㄴㄷ, ㅇㅈ가 처음 인도에 와서 다녔던 현지인 로칼 학교에 넣었습니다. 이 학교에 15년전 ㄴㄷ ㅇㅈ가 처음 외국인으로 다녔던 것과 같이 지금도 ㄱㄹ이가 이 학교에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몇 일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이들이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막 놀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달 정도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지금은 방학을 하여 집에서 이 뜨거운 더위와 함께 땀띠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건강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지내면서 많은 사역들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꿈을 놓지 말고 아뢰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김보ㅇ/ㅇ르ㄷㅇ 드림